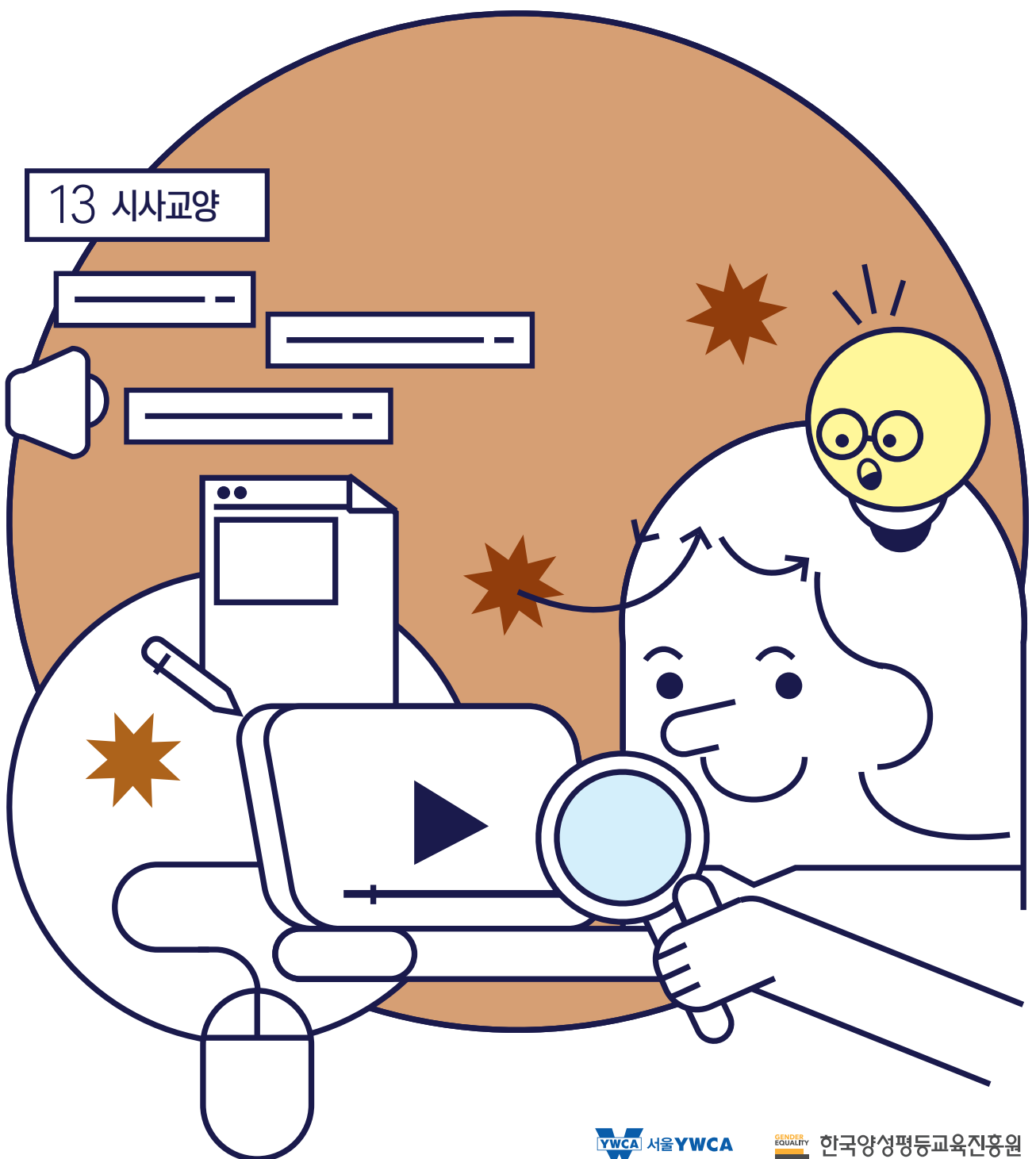


#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CONTENTS

<b>06</b>	들어가며
<b>07</b>	결과분석
<b>07</b>	양적분석
<b>11</b>	질적분석 : 성평등적 사례
<b>12</b>	질적분석 : 성차별적 사례
<b>21</b>	나가며
<b>23</b>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분석 보고서

2020. 10. 12 - 10. 18

모니터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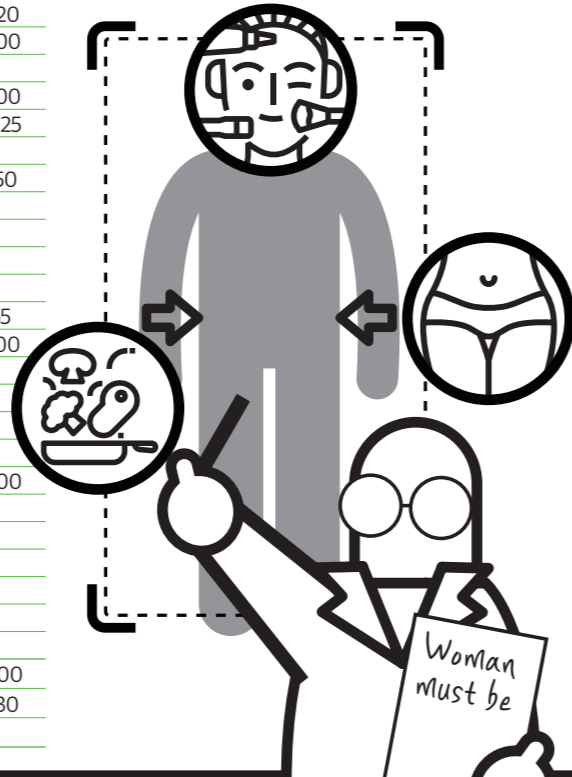
## 88 개 프로그램

방영분 중 각 1회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가?",  
"어떤 성차별적 통념을 재현하고 재생산하는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모니터링 인원 : 6명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1	내고향 스페셜	월-수/05:10	
2			생활의 발견	화-수/01:20	
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금/18:00	
4			생로병사의 비밀	수/22:00	
5			6시 내고향	월-금/18:00	
6			아침마당	월-금/08:25	
7			퀴즈 온 코리아	금/14:30	
8			안녕 우리말	월-화/13:50	
9			이슈 픽 쌤과 함께	일/19:10	
1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월/13:00	
1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토/19:10	
12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목/00:10	
13			UHD 숨터	수-금/11:55	
14			KBS 네트워크 특선	화-수/13:00	
15			TV쇼 진품명품	일/11:00	
16			국악 한마당	토/12:20	
17			한국인의 밥상	목/19:40	
18			KBS 바독왕전	일/00:35	
19			KBS 중계식	수-목/01:00	
20			바다 건너 사랑	일/22:35	
21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토/08:30	
22			열린채널	목/15:30	
23			동행	토/18:00	
24			사랑의 가족	토/13:10	
25			이웃집 찰스	화/19:40	
26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월-금/07:00
27				생생정보	월-금/18:30
28				영상앨범 산	일/07:20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29	지상파	MBC	실화탐사대	토/20:50	
30			통일전망대	토/07:20	
31			기분좋은날	월-금/09:45	
32			생방송 연금복권 720+	목/12:15	
33			생방송 오늘아침	월-금/07:50	
34			생방송 오늘저녁	월-금/18:15	
35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토/20:45	
36			우리말나들이	월-금/10:40	
37			탐나는TV	금/12:20	
38			TV예술무대	일/01:45	
39			MBC 네트워크 특선	월/12:50	
40			SBS	모닝와이드 3부	월-금/07:35
41				좋은 아침	월-금/09:10
42				생방송투데이	월-금/19:00
43				배낭 메고 인생 네 컷	월/17:50
44				생활의 달인	월/20:55
4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월/20:55
46				살맛나는 오늘	월-수/10:30
47				열린TV 시청자 세상	목/10:30
48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목/22:35
49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목-금/11:30
50			톡톡 정보 브런치	금/10:30	
51			맨 인 블랙박스	토-일/20:45	
52			물은 생명이다	일/06:10	
53			TV 동물농장	일/09:30	
54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월/18:30
55				인생토크쇼 터닝포인트	금/08:30
56				맛있는 이야기 미라클푸드	토/09:00
57				웃고 떠들고 맛있는 하우스	토/08:00
58				TV정보쇼 알짜왕	목/08:30
59				체인지	수/08:30
60				헬로 마이 닥터 친절한 진료실	월/08:30
61				부부의 발견 배우자	화/08:30
62				시청자의회	금/06:00
63				강적들	토/21:10
64			TV조선	굿모닝 정보세상	화-금/08:40
65				퍼펙트 라이프	수/20:00
66				광광 터지는 정보쇼 알맹이	일/09:40
67				건강면세점	일/10:50
68				엄마의 봄날	일/08:30
69				내 몸 플러스	일/07:30
70				탐사보도 세븐	일/19:55
71				기적의 인생	토/11:00
72				내 몸 사용 설명서	금/19:00
73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금/20:00
74			채널A	서민감부	화/20:20
75				황금나침반	수/00:00
76				채널A 시청자 마당	금/06:00
77				행복한 아침	월-금/08:00
78				천일야사	월/20:10
79				닥터 지바고	토/11:10
80				관찰 카메라 24시간	수/20:30
81				나는 자연인이다	수/21:50
82	알약방	목/20:30			
83	한 번 더 체크타임	월/20:30			
84	MBN	생생정보마당	월-금/09:30		
85		천기누설	금/20:30		
86		현장르포 특종세상	목/21:50		
87		MBN 토요 포커스	토/05:40		
88		열린TV 열린세상	토/06:00		

# 01 들어가며

미디어는 현실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지배적인 가치를 재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서도 방송은 가장 일상적인 스토리텔러로서 대중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sup>1</sup> 특히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인간의 삶과 생활을 보여주고, 상식과 정보를 소개 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재미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청자의 경향에 비해 기존의 교양방송은 다른 장르에 비해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교양에 예능을 가미시켜 연성화(軟性化)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형식의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양의 정보전달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연예인들을 등장시키는 등 흥미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다.<sup>2</sup>

페미니즘이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으며 시청자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재미를 추구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변화 속에서 성차별적 통념을 재현하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가?”, “어떤 성차별적 통념을 재현하고 재생산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의 88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1 김미라,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그 한계: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2014): 90.

2 교양방송 프로그램, 변화와 변질의 기로에 서다, 동대신문, 2015.3.5., <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90>

# 02 결과분석

## 1 진행자 분석

시사교양의 진행자를 ‘성별’, ‘역할’, ‘연령대’, ‘직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진행자 성별 역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주진행자	59(60.2%)	62(59%)	121(59.6%)
부진행자	20(20.4%)	26(24.8%)	46(22.6%)
리포터	9(9.2%)	9(8.6%)	18(8.9%)
기타	10(10.2%)	8(7.6%)	18(8.9%)
합계	98(100%)	105(100%)	203(100%)

진행자 203명 중 여성은 98명(48.3%), 남성은 105명(51.7%)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진행자의 역할 측면에서도 성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할에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진행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10대 이하	0(0%)	0(0%)	0(0%)
20대	10(10.2%)	3(2.9%)	13(6.4%)
30대	48(49%)	20(19%)	68(33.5%)
40대	31(31.6%)	45(42.9%)	76(37.5%)
50대	7(7.1%)	27(25.7%)	34(16.7%)
60대 이상	2(2.1%)	10(9.5%)	12(5.9%)
알 수 없음	0(0%)	0(0%)	0(0%)
합계	98(100%)	105(100%)	203(100%)

성별에 따른 진행자의 연령대 분석결과 여성은 30대 이하의 비율이 많고, 남성은 40대 이상의 비율이 많아 남성에 비해 여성 진행자가 더 낮은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0대 이하는 여성 58명(59.2%), 남성 23명(21.9%)으로 여성이 훨씬 많다. 40대 이상은 남성 82명(78.1%), 여성은 40명(40.8%)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50대 이상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연령대가 높은 남성을 연륜과 전문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선호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전문성보다도 젊음과 미모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50대 여성이 현저하게 적은 비율로 등장하는 것 역시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이 위치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을 기반으로 출연자를 구성하는 경향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직업 측면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아나운서와 방송인이 진행자로서 많이 선호되고 있었다. 다만 여성이 아나운서와 방송인에 대다수 몰려 있는데 비해 남성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분포되어 있었다.

진행자 성별 직업군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아나운서	53(54%)	38(36.2%)	91(44.8%)
배우	4(4.1%)	6(5.7%)	10(4.9%)
가수	6(6.2%)	6(5.7%)	12(5.9%)
문화/예술업/스포츠인	6(6.2%)	10(9.5%)	16(7.9%)
방송인	18(18.4%)	16(15.2%)	34(16.7%)
전문직(법조인/의료인/언론인)	7(7.1%)	13(12.4%)	20(9.9%)
희극인	1(1%)	11(10.5%)	12(5.9%)
교직	2(2%)	3(2.9%)	5(2.5%)
기타(유튜버 등)	1(1%)	2(1.9%)	3(1.5%)
합계	98(100%)	105(100%)	203(100%)

## 2 출연자 분석

시사교양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총 출연자 709명 중 여성은 317명(44.7%), 남성은 392명(55.3%)으로 나타났다. 성별 역할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반인 출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여성이 일반인 출연자로 등장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남성은 1회 패널로 등장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출연자 성별 역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고정패널	39(12.3%)	54(13.8%)	93(13.2%)
1회 패널	83(26.2%)	104(26.5%)	187(26.4%)
강연자	4(1.3%)	2(0.5%)	6(0.8%)
일반인 출연자	177(55.8%)	187(47.7%)	364(51.3%)
기타	14(4.4%)	45(11.5%)	59(8.3%)
합계	317(100%)	392(100%)	709(100%)

성별에 따른 출연자의 연령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 출연자 중 40대 이상 비율은 207명(65.4%)인데 반해 남성 출연자의 40대 이상 비율은 304명(77.6%)

으로 40대 이상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10대 이하	9(2.8%)	2(0.5%)	11(1.6%)
20대	26(8.2%)	16(4.1%)	4(5.9%)
30대	61(19.2%)	42(10.7%)	103(14.5%)
40대	81(25.6%)	114(29.1%)	195(27.5%)
50대	56(17.7%)	94(24%)	150(21.2%)
60대 이상	70(22.1%)	96(24.5%)	166(23.4%)
알 수 없음	14(4.4%)	28(7.1%)	42(5.9%)
합계	317(100%)	392(100%)	709(100%)

직업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출연자 모두 기타(알 수 없음) 영역이 가장 큰 비중 160명(22.6%)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공무원/관리/교직/회사원의 경우 여성은 17명(5.4%), 남성은 45명(11.5%)으로 나타났고, 전문직(법조인/의료인/언론인)의 경우에도 여성은 34명(10.7%)인데 비해 남성은 55명(14%)으로 여성보다 비율이 높았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역할로 남성을 더 출연시킴으로써 남성에게 전문가로서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또한 출연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정치인 출연자의 경우 모두 남성으로 여성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주부 출연자의 경우에는 여성만 등장하였다. 이러한 불균형한 성비 재현은 가사노동의 주체는 여성,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대표되는 것은 남성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출연자 성별 직업군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배우	16(5.1%)	19(4.8%)	35(4.9%)
가수	13(4.1%)	9(2.3%)	22(3.1%)
공무원/관리/교직/회사원	17(5.4%)	45(11.5%)	62(8.8%)
문화/예술업/스포츠인	31(9.8%)	42(10.7%)	73(10.3%)
아나운서	1(0.3%)	1(0.3%)	2(0.3%)
전문직(법조인/의료인/언론인)	34(10.7%)	55(14%)	89(12.6%)
희극인	6(1.9%)	16(4.1%)	22(3.1%)
정치인	0(0%)	3(0.8%)	3(0.4%)
방송인	7(2.2%)	8(2%)	15(2.1%)
서비스/농어업/기술직	28(8.8%)	37(9.4%)	65(9.2%)
자영업	28(8.8%)	41(10.5%)	69(9.7%)
학생/무직/임시직	20(6.3%)	5(1.3%)	25(3.5%)
연구직	9(2.8%)	6(1.5%)	15(2.1%)
주부	8(2.5%)	0(0%)	8(1.1%)
교직	13(4.1%)	31(7.9%)	44(6.2%)
기타(알 수 없음)	86(27.2%)	74(18.9%)	160(22.6%)
합계	317(100%)	392(100%)	709(100%)

##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 사례는 2건, 성차별 사례는 18건 발견하였다. 성평등 사례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평등하고 진보적인 성역할을 묘사하는 사례였다. 반면 성차별적 사례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조하고(8건),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하며(9건), 성적대상화하는(1건) 내용이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외모를 강조하는 것이 성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2	성차별적 내용	성별 고정관념 강조	8
		특정 성 비하	0	
		성적대상화	1	
		외모 지상주의	9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	0	
합계	2	합계	18	

## 성평등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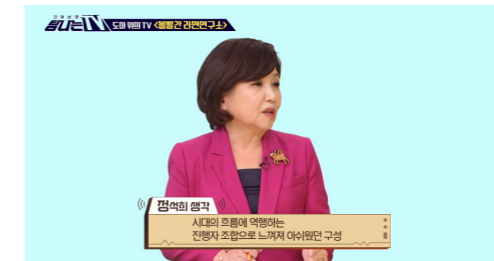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MBC / 10.16(109회) 탐나는 TV



“남성 넷에 구색 맞추기처럼 여성 한 분을 끼워 넣은 이런 구성인데 이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느낌이 들었고 좀 구태의연하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MBC <탐나는 TV> 10월 16일 방영분에서는 MBC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 <볼빨간 라면연구소>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이때 정석희 평론가가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의 성비를 지적함으로써 예능 프로그램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온 성차별적 성비 구성에 대해 문제를 짚었다.



JTBC / 10.14(64회) 체인지



“제 나이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모든 걸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독신으로 사는 60대 여성이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위와 같이 말한다. 여성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남편의 아내이자 자녀들의 엄마로 살아가는 삶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혼자서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홀로 사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비혼 여성의 삶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  
성별(젠더) 고정관념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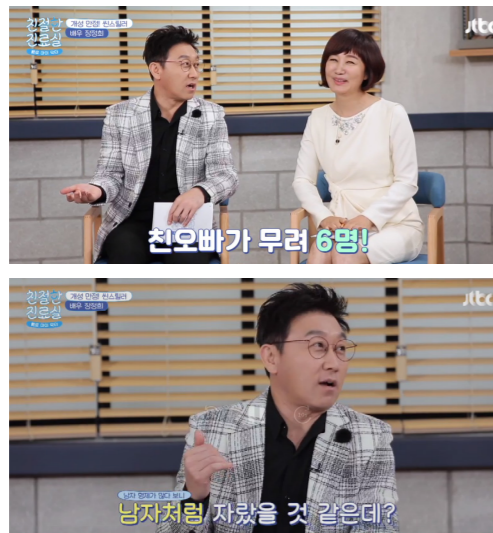
JTBC / 10.14(64회) 체인지



“또 국민 시어머니를 씌게 되니까 제가 그냥 막 저절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해지면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네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어디다 대고!”

드라마에서 ‘독한 시어머니’ 역할을 자주 맡은 배우가 출연하자 패널 중 한 명이 국민 시어머니를 뵈어 저절로 공손해지고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배우는 그 말에 불같이 화를 내는 시어머니 연기를 한다. 이들이 묘사하는 시어머니는 흔히 고부갈등을 일으키는 독하고 융통성 없는 시어머니로,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인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여 여성과 여성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한다.

JTBC / 10.12(14회) 헬로 마이 닥터 친절한 진료실



“오빠들이 많다 보니까 내숭을 못 떨어요.”/ “오빠가 여섯 분이시라고 하니 그 사이에서 자라셔서, 어떻게 보면 막내지만 ‘나도 남자다’라고 착각하고 자랐을 만한 그런 분위기인데.”

MC가 출연자에게 원래 성격이 긍정적인지 묻자, 출연자는 친오빠가 여섯 명이라 “내숭을 떨지 못했다.”라고 답한다. 이에 MC는 여섯 명의 오빠 사이에서 자랐으니 남자라고 착각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자막으로 “남자 형제가 많아 내숭 불가”, “남자 형제가 많다 보니 남자처럼 자랐을 것 같은데?”라고 표현한다.

JTBC / 10.13(12회) 부부의 발견 배우자

“5년차 부부이고요, 원조 섹시 디바입니다. 그리고 이 원조 섹시 디바를 움켜잡은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MC는 출연자 부부를 소개하며 여성을 “섹시 디바”로,



남성을 “섹시 디바를 움켜잡은 행운의 주인공”으로 표현한다. 결혼을 남성이 여성을 “움켜잡은” 것이라고 표현하여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TV조선 / 10.18(21회) 건강면세점



(자막) “애교/오빠가 끓여주는 라면이 최고~”

여성이 평범한 말투로 “원래 라면은 오빠가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는 대사를 분홍색 폰트로, ‘애교’, 하트 이미지를 추가해 자막으로 사용했다. 사회가 여성성으로 규정된 애교, 부드러움, 감성적이라는 속성을 덧씌워 표현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였다.

10.18(21회)



“다른 집의 남편과 아내가 살짝 바뀐 거 같긴 해요.”

홍록기가 배우자인 김아린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장면을 보며 MC가 남편과 아내 역할이 바뀐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가정 내에서 여성이 하는 말을 ‘잔소리’로 치부하고, ‘잔소리’는 주로 여성이 한다는 편견을 드러내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

TV조선 / 10.17(21회) 기적의 인생



“(보통은 이런 거(장보기, 요리)는 어머니님 하셔야되는데 아버님이 직접...”/ “그럼 자제분들은 우리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안 하겠네요?”/ ‘장보고 요리하는 건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계속 이어지는 외조왕 남편의 서비스”

중년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가사와 요리에 능숙하고 즐겁게 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부부의 모습이 등장한다. 임신한 딸이 “아빠 음식 먹고 싶어.”라고 말한 에피소드나 ‘살림 DNA 있는 남편이 집안일 전담’이라는 자막 등은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MC가 이에 대해 낯설고 이상한 일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자막에서 가사 노동을 남성이 한다는 이유로 외조왕이라고 강조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진행자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



TV조선 / 10.16(73회)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집의 아주머니(부인)는 음식 솜씨 좋아요?”/ “아, 영망이에요. 진짜로 영망이에요.”/ “딸이 음식 솜씨가 없으면 그 어머니도 안 좋은 거거든.”



출연자인 오대환에게 부인이 음식을 잘하는지 묻자 오대환은 영망이라고 한다. 허영만은 딸(부인)이 요리에 서투르면 그 어머니(장모)도 그렇다고 말한다. 여성은 마땅히 요리를 잘해야 하고, 여성은 딸에게 대를 이어 요리의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0.16(73회)



“바깥양반의 채근이 시작됩니다.”

남성은 바깥사람, 여성은 안사람(집사람)으로 구분하는 가부장적인 성 역할관이 반영된 구시대적 호칭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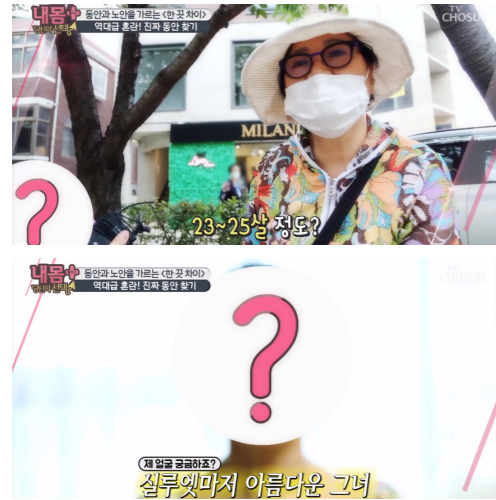
2 성적대상화

TV조선 / 10.18(218회) 내 몸 플러스



(자막) “탄탄한 몸매는 기본”/ “실루엣마저 아름다운 그녀”

여성 출연자가 피부 동안의 사례로 출연하였다. 피부와 무관한, 비키니 차림으로 몸매를 부각한 사진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여성의 나이를 추측해보라는 인터뷰를 한다. ‘탄탄한 몸매’와 ‘실루엣마저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고, 여성의 신체를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훑고 올라가는 카메라 워킹으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였다.

### 3 외모 지상주의

TV조선 / 10.18(95회) 광팡 터지는 정보소 알맹이



“우리가 그냥 봐도요, 임성민 씨 보면 뭔가 좀 탄탄한, 근육이 이렇게 좀 탄력 있어 보이잖아요.”

여성 출연자가 SNS에 올린 사진을 방송에서 노출하고, 다른 출연자들은 사진 속 몸매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을 한다. ‘탄력 넘치는 몸매 공개’라는 자막과 함께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방송에서 노출하여 여성의 신체를 전시하며 시선을 끌었다. 20대 여성의 몸매를 이상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50대에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칭송하며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JTBC / 10.12(14회) 헬로 마이 닥터 친절한 진료실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라는 단어에 진짜 민감하구나.”  
“왜냐하면 평생 고민이 그 다이어트거든요.”

영양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하자 두 여성 출연자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요?” 하며 반응한다. 자막으로 ‘다이어트 얘기에 두 여성 대 흥분’이라 띄우며 ‘여자들의 평생 고민, 다이어트’라고 표현하였다. 모든 여성이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듯 전제함으로써, 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키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외모 지상주의 강박을 조장하고 있다.

TV조선 / 10.18(95회) 광팡 터지는 정보소 알맹이



(자막) “미모, 지성, 연기력 삼박자 갖춘 원조 아나테이너 임성민이 뒀다!”

여성 출연자를 아나운서와 엔터테이너를 합성한 아나테이너로 소개하며 ‘미모, 지성, 연기력’의 세 가지 요소를 아나테이너의 조건으로 들었다. 여성의 외모를 지성, 연기력과 같은 선상에 둬으로써 여성에게 외모가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10.18(95회)



(자막) “미남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하체 근육 뽐뽐 운동법”

영양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하자 두 여성 출연자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요?” 하며 반응한다. 자막으로 ‘다이어트 얘기에 두 여성 대 흥분’이라 띄우며 ‘여자들의 평생 고민, 다이어트’라고 표현하였다. 모든 여성이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듯 전제함으로써, 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키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외모 지상주의 강박을 조장하고 있다.

TV조선 / 10.18(218회) 내 몸 플러스



“20대로 보이는 동안 미녀 현경 씨”  
“민낯도 부끄럽지 않은 무결점 피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주름, 잡티 등을 여성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결점’으로 보고, 주름과 잡티가 없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강조한다. ‘민낯도 부끄럽지 않은 무결점 피부’라는 표현은, 깨끗하지 않은 민낯을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한다. ‘방부제 미모’, ‘20대 못지않은’ 등의 자막은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고운 피부를 여성미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TV조선 / 10.17(21회) 기적의 인생



(자막) “피부면 피부! 몸매면 몸매!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게 완벽”

일반인 여성 출연자를 소개하면서 피부, 몸매를 언급하며 평가한다. “피부면 피부! 몸매면 몸매!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게 완벽”이라는 표현으로 외적인 조건이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전부인 양 표현하고 있다.

JTBC / 10.17(83회) 웃고 떠들고 맛있는 하우스



“피부나 얼굴도 얼굴이지만, 무엇보다도 몸매가! 몸매가 진짜 40대라고 하시기에는 정말 너무 좋으세요. 키도 크시고 군살이 하나도 없으시고 늘씬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아까 딱 걸어오시는데, 전문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몸매가 아~ 아주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출연자가 자신이 나이를 속이면서 활동했던 과거를 고백하자 다른 패널들은 출연자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동안으로 보인다며 칭찬한다. 특히 출연자의 몸매에 대한 언급이 상당수를 이루는데, 이렇게 나이가 실제로는 많으나 어려워 보이는 여성의 몸매를 칭찬하는 것은 그만큼 몸매에 탄력이 없거나 몸매 관리를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좋은 몸매,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외모 강박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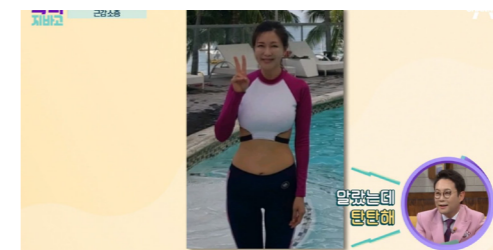
채널A / 10.16(433회) 행복한 아침



“여자분들 종아리운동 얘기하면요, 두꺼워지면 안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법을 이용해주시면 오히려 다리가 더 얇아질 수도 있어요. 탄탄해지는 거죠. 일자로 곧은 다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얇은 다리’, ‘일자로 곧은 다리’로 정형화하며 이런 미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출연자의 말을 통해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채널A / 10.17(314회) 닥터 지바고



“말랐는데 탄탄해. 신영씨(여성 진행자)는 말랐는데 안 탄탄해.”

남성 출연자가 한 여성 출연자의 몸매를 “말랐는데 탄탄해.”라고 평가하고, 다른 여성 진행자에게는 “OO씨는 말랐는데 안 탄탄해.”라고 하며 비교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여성의 미를 평가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미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여성에게 미덕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 03 나가며

오늘날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로 등장하는가?”,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가?”, “어떤 성차별적 통념을 재현하고 재생산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모니터링하였다.

2020년 시사교양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여성 진행자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으나, 대체로 성비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시사교양 프로그램 여성 진행자의 비율은 2017년 39.1%에서 2020년 48.3%으로 늘었고, 여성 출연자의 비율은 2017년 46.7%에서 2020년 44.7%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이동후 외<sup>3)</sup>는 생활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교양의 영역이 여성의 교양, 즉 가정과 교육에 제한되면서 공사 영역 구분이 반복되고 있기에, 이 분야에서 여성의 성비가 지나치게 많이 재현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차이나는 클라스(jtbc)의 여성 패널 비중은 높지만 강연자는 주로 남성을 등장시키듯, 성비의 재현보다도 여성이 어떤 역할로, 어떤 정보에서 제시되는지 역할과 내용 측면에서의 젠더 고정관념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동후 외(2018). <방송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 예능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7쪽.

모니터링 결과, 여성에게 전통적인 여성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특정한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성차별적인 언행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등장시키기 보다는 누군가의 아내로 설명하고,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과 기대에 기반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장면도 발견하였다. 여성 출연자에게 어김없이 여성의 능력보다도 외모를 강조하고, 여성의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표현하며 여성 출연자의 몸매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기도 하였고, 이는 남성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건강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에서 조차 좋은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건강의 기준으로 전제하여 다이어트를 소개하거나, 노화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여성은 날씬하고, 아름다워야만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지점이었다.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는 특히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서 다수 드러났는데, 아침 교양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이 중년 이상의 연령대라는 것을 가정하고, 여성은 중년 이상이라도 아름다워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외모와 연령의 기준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0대라는 특정한 연령대를 계속 호명하며 여성에게 20대가 가장 가치있는 시기이며, 그 이상의 나이에도 20대와 같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 또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중들의 삶과 생활을 재현하며 사회적 통념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본에 기반하여 제작되는 드라마 등의 장르에 비해 출연자 개인의 가치관과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의 성차별적 통념이 방송을 통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성차별적 통념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더 민감한 성인지 감수성과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송의 제작과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

모니터영역	
방송사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JTBC ⑥ MBN ⑦ 채널A ⑧ TV조선 ⑨ tvN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2020년 월 일( ) : - :

출연자 분석 *프로그램에 등장한 모든 출연자	
이름	
진행자	① 주진행자 ② 부진행자 ③ 리포터 ④ 기타(서술)
출연자	① 고정 패널 ② 1회 패널 ③ 강연자 ④ 일반인 출연자(취조참가자 포함) ⑤ 기타(서술)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이상 ⑧ 알 수 없음
직업	① 언론인(기자, PD 등) ② 비평가/평론가 ③ 국회의원 ④ 교수 ⑤ 변호사, 검사, 판사 ⑥ 공무원 ⑦ 경찰, 형사 ⑧ 방송인/전문진행자 ⑨ 케그맨/코미디언 ⑩ 배우 ⑪ 가수 ⑫ 모델 ⑬ 학생 ⑭ 작가 ⑮ 자영업자(사장/대표 포함) ⑯ 일반시청자 ⑰ 요리사/요리연구가 ⑱ 상담사 ⑲ 주부 ⑳ 운동선수 ㉑ 의사 ㉒ 회사원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기타_____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차별적 내용					
방송사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희롱 성폭력 정언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프로그램명					
방송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 측면에서 방송의 성차별적 성비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혼 여성의 삶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며 여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묘사한 2건의 성평등 사례는 매우 의미 있었다. 성평등한 시사교양 방송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어 시청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건전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모니터링 지표

성평등적 내용	성차별적 내용
<p><b>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인성, 다양성을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li> <li>-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회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li> <li>-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li> <li>-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남성의 기사 노동은 단순 등장으로 포함시키지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포함시키도록, ex. 남성의 기사 노동이 이벤트 상의 남성 육아를 보여주는 경우, 같이 기사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에게 더 큰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 등은 다양한 역할로 표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li> <li>-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li> </ul> <p>(ex. 중년 여성을 어머니가 아닌 다양한 역할로 등장시키는 경우)</p>	<p><b>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은 수동성, 연약함, 감정적, 종속적, 부드러운, 민감한, 감정적 등의 속성을, 남성은 능동적, 강인함, 이성적, 지배적, 거친, 현실적 등의 속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며 여성과 남성은 이러한 속성에 의해 구분된다고 여기는 이분법적인 사고</li> <li>- 남녀 간 생물학적, 선천적, 혹은 사회적 상하 관계를 설정하는 것</li> <li>- 남성은 경제활동과 가족 부양 역할을 못하면 남성으로서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함</li> <li>-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가족 내의 것으로 한정하고 이것이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며 여성 스스로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li> <li>- 여성의 기사노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사노동 평가절하)</li> <li>- 여성의 모성애를 생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을 비판하거나 나아가 차별하는 이야기 구조, 대사나 장면 등을 말함 (모성 이데올로기)</li> </ul> <p><b>성별 속성을 근거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열등하게 간주하는 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하, 혐오적 발언을 하는 것</li> <li>- 여성의 경우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li> <li>- 남성의 경우 능력이나 체력이 부족한 것을 경멸적으로 표현</li> </ul> <p><b>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사하는 장면이나 그 욕망을 표현하는 대사 등을 말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여성에게 있어 성적 매력의 중요하고 이는 여성이 성을 주체적으로 즐기게 보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li> <li>- 몸과 성적 기능을 인격과 분리하여 단순한 도구로 위치시키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인 것처럼 간주함</li> <li>- 이렇다함이 여성에게 절대적 가치이며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li> </ul> <p><b>미를 키, 몸무게, 얼굴 크기 등에 따라 정형화하며 이러한 기준에 들지 못하는 면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기도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에는 여성에게 많이 강조되었으나 점점 남성에도 적용되는 추이</li> </ul> <p><b>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 혹은 성적 농담의 소재로 삼아 여성을 불편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을 연애감정이나 사랑으로 낭만화하는 것</li> <li>- 뉴스, 다큐멘터리 등에서 성폭력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묘사 등을 보여주는 것을 말함</li> </ul>
<p><b>성적 대상화</b></p>	
<p><b>외도 지성주의</b></p>	
<p><b>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b></p>	

##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행인 : 이유림 | 편집인 : 양진희 | 편집 : 최복경(에디팅) | 연구원(서울YWCA 여성운동부) : 김유 · 김수이(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 발행처 : 서울YWCA 주주 : 06538 서울시 중구 명동 1가길20  
전화 : 02-3705-6069 | 팩스 : 02-3705-6020 | 홈페이지 : www.seoulwca.org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기관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